

질문으로 하는 성경공부: 요한2서

1. 요한2서

1) 관찰질문: 요한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어떤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나요? (1:1, 2, 3, 4)

2) 해석질문: 요한이 말하는 ‘진리’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? 요한은 편지를 쓴 자신을 “장로” 라고 소개하는데 이 표현에 담긴 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?

3) 적용질문

3.1(먼저오심):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, 우리를 먼저 사랑해주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(요일 4:8-9). 요한2서에서도 “서로 사랑하자,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”(1:5-6)이라고 이를 확인해줍니다.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느낀 경험은 언제 어떤 계기로 하게 되었나요?

3.2(만나주심): 요한은 ‘택하심을 받는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(1:1)’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. 요한은 그들을 특별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와 같이 특별한 격려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존재로 불러준 경험은 언제 하셨나요? 그 경험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?

3.3(다듬으심): 요한은 “사랑하라,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(3:6)”고 말하면서도, 교회 안으로 들어온 “속이는 자들, 그리스도의 적대자(1:7),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(1:9)”를 향해서는 “집에 들이지도 말고,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(1:10)”라고 단호하게 권면하면서 ‘기독교적 환대’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경계선 없이 사랑으로 대하다가 공동체에 혼란을 가져왔을 때,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시키신 경험이 있습니까?

3.4(들어쓰심): 요한은 ‘기독교적 환대’의 기준 또는 경계를 제시한 후에,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‘순회 복음전도자들’을 잘 대접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면 “기쁨”을 경험하게 됨을 고백합니다(1:12).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? 누군가에게 환대를 베푼 후에 경험한 기쁨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?

4. 삶의 현장에서: 요한2서를 읽다 보면 ‘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(1:6)’과 ‘조건적인 우리/공동체의 사랑(1:10)’이 서로 긴장관계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. 기독교적 사랑과 환대의 기준 또는 한계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?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?